

삼성디스플레이, RBA 가입

전사적 'ESG 경영' 토대 마련

RBA, 5개 분야 행동규범 제정·운영
애플·인텔 등 160여개 기업 회원사
'지속가능경영 사무국' 신설

삼성디스플레이가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책임감 있는 산업 연합(RBA)'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RBA는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의 연합체다. 기업 윤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국제 규범을 바탕으로 한 안전보건, 환경, 기업윤리, 경영 시스템 등 5개 분야 RBA 행동규범을 제정해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와 애플, 인텔 등 160여개 글로벌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RBA에 가입하면서 국내법뿐 아니라 글로벌 행동규범을 더욱 엄격하게 경영에 적용하며 글로벌 ESG 가치 경영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사업장과 협력사도 RB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경영 시스템과 작업 환경 등 현장 점검과 객관적 실사를 강화하고 ESG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삼성디스플레이

경영 안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나설 예정이다. 제3차 현장 수검(VAP)을 실시해 전문평가기관에서 RBA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현장 평가를 진행한다.

아울러 삼성디스플레이는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경영 사무국'을 신설하고 전체 사업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전사적인 ESG 경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올 초 기후 변화, 자원순환, 지속가능한 제품, 상생협력, 지역사회 등 5개 중점 추진 영

역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정립하는 등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신재호 경영지원실장(부사장)은 "삼성디스플레이는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을 선도해온 대표기업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과정에서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며 고객과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 인류의 발전과 행복에 기여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찐' 하이브리드세단에 편의성까지 높였다

자동차 시승기

혼다 '뉴 어코드 하이브리드'

전기모터 2개 사용 '풀스트롱 타입' 클러스터 정보 출력 업그레이드
'혼다 센스' 2단계 자율주행 최고 수준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친환경과 고성능 모두를 만족하는 진짜 하이브리드 세단이다. 전기 모터 2개를 사용하는 '풀스트롱 타입'으로 높은 연비와 고성능 전기차, 내연기관 차의 편의성을 모두 느껴볼 수 있다.

뉴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여기에 편의성까지 새로 넣었다. 겉보기와는 달리 속으로는 알차게 기술로 채워넣어 완전히 새로 돌아왔다. 뉴 어코드 하이브리드와 약 100km 가량을 달려봤다.

전반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다. 전면 그릴만 약간 바뀐 외관, 여전한 아날로그 클러스터, 다소 작아보이는 8인치 디스플레이와 센터페시아 버튼들까지. 전세계 경쟁 모델을 비교하면 특별하지 않은 모습이다.

그러나 기능으로는 여느 고급차에 뒤지지 않는다. 스티어링휠 버튼을 재배치하고 클러스터 정보 출력도 더 업그레이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혼다 센스'는 이제 2단계 자율주행 중 최고 수준으로 거듭났다. 차선 유지보조시스템(LKAS)과 후측방 경보시스템(BSI) 뿐 아니라, 차량 간격과 끼어드는 차량을 인식, 혹은 교통 정체 상황에서 부드럽게 속도를 조절해주도록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을 업



뉴 어코드 하이브리드.

/혼다코리아



뉴 어코드 하이브리드 클러스터. 구형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결합해 신규 조화를 이뤄냈다.



뉴 어코드 하이브리드 엔진.

그레이드 하고 저속 추종 시스템(LSF)를 추가했다.

직접 사용해 본 결과 신뢰성은 충분했다. 개입 정도가 크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움직이는데 중점을 뒀다. 제동이 있는 도로에서도 속도를 유연하게 조절하며 대처해 운전 피로를 최소화해줬다.

안전 사양도 같이 더해졌다. BSI에 더해 크로스 트래픽 모니터(CTM)로 후측면 사각지대 접근 차량도 알려준다. 차량만이 아니라 외벽을 감지해 멈춰주는 저속 브레이크 컨트롤 시스템, 그리고 뒷좌석 승객을 잊지 않도록 리마인더도 새로 도입했다.

인상 깊은 부분은 편의사양이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새로 적용했는데, 아직 보편화되지 못한 무선 연결도 가능하다. 작은 디스플레이가 아쉽지만, 편의성만으로는 현존 최고 수준이다. 1열 통풍 시트와 스티어링휠 열선, 헤드업 디스플레이(HUD)도 추가해 국내 소비자들의 요구도 충족했다.

주행 성능도 여전히 만족할만 했다. i-MMD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전기차 수준 토크를 발휘하는데, 여기에 옛 킨슨 가솔린 엔진을 더해 막강한 가속력을 자랑했다. 주행 중 저소음과 저진동 역시 시대를 앞서왔다. /김재웅 기자

'200GB 월 3만원대' 알뜰폰 요금제 출시

KT엠모바일, LTE요금제 개편

알뜰폰 KT엠모바일은 LTE 요금제 및 프로모션을 개편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KT엠모바일은 알뜰폰 업계 최초로 월 3만 원대 요금에 데이터 200GB를 제공한다.

우선 KT엠모바일이 지난 1월부터 진행한 추가 데이터 제공 프로모션 '데이득(데이터+이득) 프로모션'의 적용 범위와 데이터 혜택을 강화했다. 프로모션이 적용되지 않는 요금제였던 ▲모두다 맘껏 100GB+(시즌) ▲모두다 맘껏 100GB+(게임박스) ▲구글플레이 100GB+ 3종에도 2년간 매월 100GB 추가 데이터를 지원해 총 200GB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들 요금제의 월 통신비는 모두 3만 9700원이며 기본 데이터 소진 후에는 5메가비피에스(Mbps) 속도로 무제한 데이터 이용을 이용할 수 있다.

올 1월 기준 데이득 프로모션 수혜를

/김나인 기자 silkni@

받은 고객 절반 이상이 월 최대 171GB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모두다 맘껏 11GB+'(월 3만2980원)을 선택했다. 고화질 영상, 모바일 게임 등의 영향으로 알뜰폰 업계에서도 고용량 데이터 요금제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KT엠모바일은 월 통신비 1~2만 원대에 데이터 소진 후 1Mbps 속도를 지원하는 중저가 요금제에도 데이터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월 6GB 데이터 제공 요금제 ▲모두다 맘껏 6GB+(월 2만9700원) ▲데이터 맘껏 6GB+/100분(월 1만9800원) 2종에 매달 추가 데이터 6GB를 평생 증정한다.

또 ▲데이터 맘껏 1GB+/100분(월 1만4300원, 월 데이터 1GB) ▲모두다 맘껏 1.4GB+(월 1만7600원, 월 데이터 1.4GB) ▲모두다 맘껏 3GB+(월 2만4200원, 월 데이터 3GB) 3종에 대해서는 월 4GB의 추가 데이터를 가입 기간 내내 지원한다.

KT, 외국인 위한 '다국어 문자 안내서비스'

영어·중국어·베트남어 3개국어

KT는 외국인 고객을 위한 다국어 문자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22일부터 국내에 장기 체류하며 KT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고객들이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3개국어로 작성된 안내 문자(MMS)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KT는 서비스의 가입 및 개통 시점부터 서비스 이용과 요금 수납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410여 종의 필수 안내 사항을 비롯해 고객센터를 통해 가장 많이 접수되는 문의 사항 등 총 610여 종의 문자 안내 서비스를 다국어로 제공한다. 자사의 모바일, 인터넷, IPTV 서비스 가입 고객 대상이다. 제공 언어와 서비스 범위는 향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외국인 고객이 KT 대리점에서 다국어 문자 안내 서비스에 대해 안내 받고 있다. /KT

이 다국어 문자 안내 서비스는 가까운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외국인 전담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객이 선호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해당 언어로 기재된 안내 문자를 한글과 함께 받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에서 이용 요금의 상세 내역과 멤버십 포인트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색동옷 입은 '위니아 공청기' 라인업 선보

위니아 퓨어플렉스 4가지 컬러 웨이브 에어컨과 컬러 매칭 가능

위니아 공기청정기가 화려한 색깔을 입는다.

위니아답체는 위니아 퓨어플렉스에 4가지 컬러를 추가한다고 21일 밝혔다.

올 초 출시한 화이트에 이어 ▲프랑스 파리의 밤하늘을 담아낸 프렌치 네이비 ▲몰디브 해안에 반사된 바다를 모티브한 몰디브 블루 ▲몰타해변의 청명하고 깊은 바다색을 표현한 몰타그린 ▲캐리비안 해변의 석양을 품은 캐리비안 코랄 등 5개로 확대된 것.

이들 컬러는 위니아 웨이브 에어컨과 컬러 매칭도 가능해 취향에 따라 맞춰 선택할 수도 있다.



위니아 퓨어플렉스 컬러 라인업. /위니아답체

성능은 펫 모드와 에어클린 UV 살균 등 고급형 기능을 그대로 적용해 프리미엄 수준을 유지했다.

CA마크와 대한야토협회 예방제품 추천, KC인증과 전자파 적합 인증도 받았다.

출하가는 70만원대다. 에너지 소비효율은 1등급으로 온오프라인에서 구매 가능하다.

/김재웅 기자